

CoverStory

인천의 대중교통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0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I Interview

연구/원/소/식



2006 여성토론회
2006 여성토론회 주최:인천
광역시, 주관:인천발전연구원
으로 인천시...

인천/나/들이



인천에서의 시간여행, '인천
경제자유구역 홍보관'과 '인
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의 미래 : 인천경제자유
구역 홍보관 서기 2020년 인
천의 미래를...



인천아프리에의 네 번째 만
남
우선 사장님께서 올 해 2
월 인천지하철공사 사장으
로 취임하셨고, 7월엔
'한...

시/정/연구



인천시 BIS/BMS 구축에
관한연구
1. 들어가며 2000년 이
후 기...

도/시/동/향



일본 동경도 에도가와구
(江戸川区) 친수공원 및
친수녹도
1. 도시 소개 일본의 수
도인 동...

신/간/소/개



2006 정보화에 관한 연
차보고서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87-1996...

I ID인/터/뷰

인천아트리에의 네 번째 만남

인천지하철공사 김우철 사장과의 만남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0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아트리에의
네 번째 만남

인천지하철공사
김우철 사장

Q 우선 사장님께서 올해 2월 인천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고, 7월엔 ‘한국의 CEO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취임 후 짧은 기간 안에 수상하셔서 더 큰 의미를 가진 상이라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수상소감과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주세요.

A 먼저 감사드립니다. 취임 후, 짧은 기간 안에 받은 상이라 제 능력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을 인천시민들이 인정해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는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인천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이라도, 정확히 언제 개통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오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시민들에게 인천지하철의 역사와 이용실태를 간단히 알려주세요.

A 저희 인천지하철은 1999년 10월 6일 개통되어서 지난 6일부로 개통 7주년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굴현역에서 남쪽의 동막역까지, 22개의 역사가 있으며 총 길이 21.9km로 약1km당 역사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지하철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금년에는 3%정도 늘어 2006년 9월말 기준으로 평일 약 20만명, 주말 약 15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이용객 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유가가 많이 올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기 도 하지만 지하철 역사에서 열리는 많은 문화행사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새로 건설되는 인천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Platform screen door)'가 설치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구하고 계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A 지하철은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지하철공사는 안전에 중사하는 직원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스크린도어는 아이들과 장애인들의 안전예방은 물론 먼지나 소음을 막아주며 기관사가 맘 편히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지하철역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내년 3월 개통예정인 계양역과 2009년 개통 예정인 송도신도시 연장선 6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예정이고, 기존의 22개의 역사에도 단계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설비 및 각종 안전관련 시설물 확보에도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내년 3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의 연계를 계기로 지하철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새로운 역이 개통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신데요, 현재 계획된 사항들이 있나요?



A 먼저 인천시민들이 가장 소망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2008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예정이고, 서구검단 오류동에서 주안역과 시청을 경유하여 인천대공원까지 약 29km가 건설될 것입니다.다른 역들을 완공 시기로 본다면 내년 3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되는 계양역이, 2009년엔 송도신도시연장선이 개통예정입니다. 2011년에는 부평구청역과 서울7호선 온수역이 연계운영 되고, 2013년에 수인선이 완공되면 원인재역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Q 현재, 인천지하철공사에서는 여러 문화행사나 골현기지견학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지하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나 앞으로 기대되는 행사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인천지하철의 현모습을 직접 알기위해 가끔적이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많은 공연과 전시회 등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천시청역 상설공연장에서 매주 금요일에 파도TV가 주관하여 인천지하철과 함께 운영하는 '금요예술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각종 전시회와 음악회, 마술쇼까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 아주 좋습니다.또한 골현기지사업소견학과 함께 년2회 이용손님 대상 자동차 소방안전설비 홍보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엔 인천지역의 1,800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행사나 안전 체험 행사를 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본 인천지하철



인천은 수도권의 다른 지하철에 비해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인지 쾌적하고, 지하철역에서 문화생활을 위한 이벤트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단순히 교통수단이라는 지하철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많아서 인천지하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선영(20대후반, 인천시 부개동)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0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원/소/식

인천발전연구원 - 국토도시연구원 업무협약조인식



2006년 8월 30일 16:00

인천발전연구원 - 국토도시연구원 업무협약조인식 인천발전연구원과 국토도시연구원은 연구교류, 인력교류, 지식정보교류 등 제반 교류영역의 확충을 통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역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대화의 시간 - 인천대교건설현장방문



2006년 9월 12일 2:00

9월 대화의 시간 - 인천대교건설현장방문 인천발전연구원 직원들은 '9월 대화의 시간'에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게 될 인천대교공사가 한창인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교건설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홍보관에서 사업계획과 건설진행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선박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2006 문화정책토론회



2006년 9월 21일 목요일 2:00

2006 문화정책토론회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주최로 2006문화정책토론회가 2006년 9월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차세대형 문화와 산업의 복합 도시 발전전략인 '창조도시'에 대해 개념정립과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제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대련발전연구중심 인력교류



2006년 9월 25일 ~ 29일

대련발전연구중심 인력교류 인천발전연구원은 중국지역 해외교류 연구기관인 대련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과의 우호교류협정 및 공동사업추진협정 등에 근거하여, 양 기관의 정례적인 상호방문을 통해 양 도시에 대한 폭넓고 실질적인 이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련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인천 및 수도권지역의 도시 및 산업시찰을 제공하였습니다.

2006 여성토론회



제로 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목요일 9:30~17:00

2006 여성토론회 주최:인천광역시, 주관:인천발전연구원으로 인천시 정책의 성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시 각종위원회 위원 성평등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선느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강선미 교육실장의 '글로벌화와 한국여성정책의 위상' 과 몸과 마음 연구소 최아롱 소장의 '몸과마음을 자유롭게-건강강좌 및 요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상화 교수의 '한국사회 성인지 정책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주

시/정/연/구

인천시 BIS/BMS 구축에 관한연구

교통물류연구실 최병국 선임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0월호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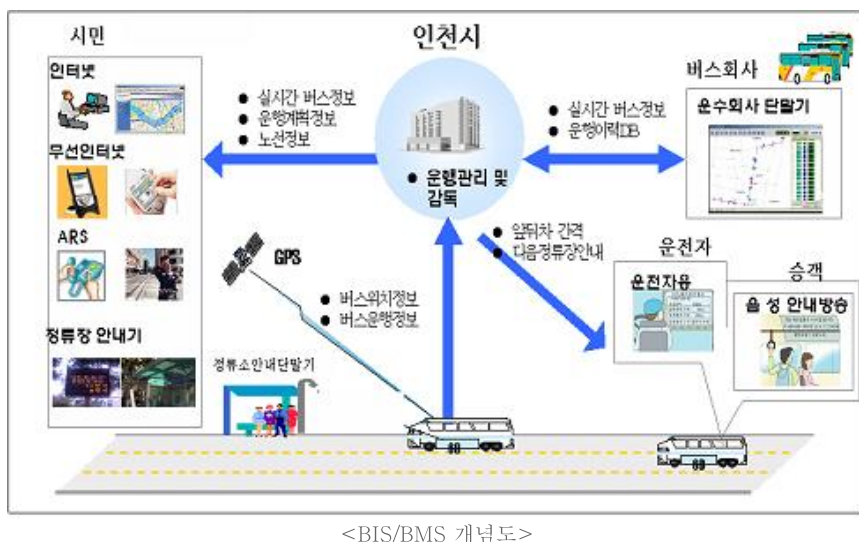
▶ 웹진 구독신청

1. 들어가며

2000년 이후 기존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BIS(버스정보안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Bus Management System)사업은 버스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지자체, 사업자 모두에게 필요하므로 준공영제의 도입과 함께 ITS사업 중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구축·운영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2003년 2개 노선에 BIS 시범 사업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 효율성, 정시성, 시민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까지 사업이 전 노선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여러 연구에서 BIS/BMS사업 구축이 선결과제로 요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BIS/BMS 사업이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구축·운영토록 하였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자가망을 이용한 광역교통정보 사업이 구축 중에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BIS/BMS 사업에서는 광역교통정보 사업에서 구축한 자가망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타지자체처럼 임대망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BIS/BMS 개념도>

2. 인천광역시 BIS/BMS 구축방안

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을 인천광역시 BIS/BMS사업에 교통정보사업의 자가망을 활용할때와 임대망을 이용하여 BIS/BMS 구축 할 때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다.

1. 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 무선통신(자가망) 활용에 대한 검토결과

◎ 통신커버리지

노변기지국의 직진 가시구간(LOS)에 영향을 주는 건물, 도로선형, 가로수 등의 무선통신의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유효통신 거리를 1km, 800m, 500m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커버리지는 버스운행 도로구간 43~27%, 버스정류소 44~30%로 현격히 낮아지며, 버스차량의 운행시 안테나의 지향성에 따른 통신음영 발생 시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UTIS무선통신시스템을 BIS/BMS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구간 및 정류소에 추가적인 노변기지국 또는 무선중계기가 필요하다.

◎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신뢰성

UTIS 무선통신기술 규격상의 노변기지국 1개소의 최대접속처리는 초당 500대이며, 일반적인 운영시에 초당 200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신음영구간이나 통신커버리지 내의 노변기지국과 차량단말기 안테나의 지향성에 따른 통신 음영 발생시에는 BIS/BMS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다.

◎ 확장성 및 불확실성

인천광역시 BIS/BMS 구축대상 버스노선의 확대나 영종/강화지역 등 정보수집 지역이 확대에 따른 UTIS 무선통신시스템의 추가구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 UTIS 무선통신망이 구축완료되어 있지 않으며, 타시도지역에도 UTIS 무선통신망이 구축완료된 곳이 없어 현장설치에 따른 실제 통신특성 및 운영특성을 BIS/BMS구축시 고려할 수 없다.

2. UTIS무선통신망(자가) 및 타 통신망(임대) 경제성 비교

UTIS 무선통신망의 추가 구축 분 및 운영비와 임대망의 통신비를 ITS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을 때, UTIS 무선통신망 여러 시나리오중 가장 보수적인(구축비용이 적게 들 때) 경우 노변기지국 설치비용 43억원과 무선중계기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하며, 임대망 활용시 통신비는 38~33억 정도가 필요하므로 임대망이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 BIS/BMS를 구축하는데 있어, UTIS 망을 활용하기보다는 타 지자체처럼 임대망을 이용함이 타당하다.

3. 인천광역시 BIS/BMS 구축비용

인천광역시 BIS/BMS 시스템은 현장부문과 센터부문으로 나누어지며, 현장부문은 차량단말기 1,884대, 정류소안내기 1,143대와 유/무선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약 18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센터부문은 약 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관리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60억원정도로 예상된다.

3. 정책제의

인천광역시 BIS/BMS 구축비용으로 현장부분에 약 189억원, 센터운영을 위해 약 46억원 등 총 260억원의 비용이 산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확정 사업비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부분의 구축물량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추가적으로 현장부분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망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UTIS의 자가망 및 기본 BIS사업의 RF자가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인천/나/들/이

인천에서의 시간여행,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과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이충석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0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의 미래 :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서기 2020년 인천의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하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기본코스.

홍보관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1층에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첨단SF영화 촬영지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우선 세련된 그래픽패널과 전시모형 그리고 LED전광판, PDA정보검색기와 외국어음성정보서비스기...



먼저, 영상관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두 편의 영상물을 보게 되는데, 현란한 컴퓨터그래픽과 풍부한 사운드가 압권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현황 프리젠테이션과 CF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없이 빠른 전개와 강한 비트의 배경음악은 미래로의 공간이동을 위해 시간을 압축한 듯한 임팩트가 느껴진다.

영상관을 빠져나오면 1994년부터 준비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연혁이 일목요연하게 그래픽패널에 정리되어 있고, 대형필름에 인쇄된 인천 전역의 항공사진과 그 아래로는 총 209km²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송도,영종,청라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어떻게 개발될지 구체적인 미래도시 인천의 모습이 축소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당초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만든 시설이므로, 일반인 관람객들은 평일에 PDA정보검색기와 음성정보서비스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 정부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온 관람객이라면 사전 예약 후 홍보담당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맑은 날에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외부 전망대에서 송도국제도시 전역을 조망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인천의 과거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19세기 4/4분기에서 20세기 초, 강화도조약(1876년)에 따른 개항기 이후 인천의 모습은 인천 중구 일원 곳곳에 기억의 편린들처럼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당시 만들어진 근대건축물들을 한 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인천 중구 중앙동의 중구청사 부근에 위치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은 1890년 건립된 舊일본 18은행 인천지점 건물을 전시관으로 리노베이션하여 지난 9월 27일 개관한 것이다.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역사유물을 시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훌륭한 사례가 되고 있다. 건축 외양은 일본식 서구스타일(후기르네상스양식)로 '덩치가 큰 미니어처' 같다는 느낌이 딱 일본풍이다.

시지정무형문화재 50호이기도 한 이 전시관의 내부에 들어서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전시구역은 첫번째 '제물포가 열린다'를 테마로 개항 당시 시대상황, 인천항의 모습, 근대화가 시작된 제물포 등으로 꾸며졌고 두 번째 전시 존(Zone)에서는 '개항기, 중구의 모습을 보다'를 테마로 1914년까지 존치되었던 조계지의 풍경과 1920년대의 인천 중구 모습이 전시되고 있으며, 끝으로 '건물이 역사가 되어 근대를 말한다'라는 테마의 세 번째 전시 존에서는 현존 또는 소실된 근대건축물 14점이 축소모형과 당시의 엽서로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관은 일반적인 박물관으로서의 기본기능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기능 중 시설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시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건축물 자체가 보존대상이 되는 전시물이라는 특성을 잘 살려 보존과 전시를 동시에 염두해 두고 있다.

리플릿은 다양한 정보들이 빼곡히 들어 있어 교육용 자료로도 손색이 없으며, 야외 휴식공간과 화장실은 지금까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라 반갑기 그지없다. 또한 기능적으로 역사탐방, 답사, 관광 등으로 인천개항장 방문 시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또는 감정이입을 위한 전이단계로써 몰입효과를 줄 수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근대건축전시관 관람을 인천개항장 답사와 연계하여,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천문화관광해설사 홈페이지(<http://www.incheonculture.com>)로 문의하기 바란다.

시/정/연/구

인천시 아파트가격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연구실 기윤환 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0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1. 들어가며

인천시의 아파트가격은 1998년 IMF를 기점으로 최고가 아파트와 최저가 아파트간의 가격차이가 심화되기 시작하여 2005년 11월 기준 최고가와 최저가 아파트의 평당매매가 차이가 10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구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승인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1,000만원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가치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하여 1,500만원/평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2005년말 청라지구 25.7평형 초과 아파트 건설 가능 택지가 814만원/평으로 분양되어 머지않아 아파트 분양가격이 1,200만원/평 이상이 되는 아파트의 건설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아파트 가격의 격차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송도 등 신규개발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이상급등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고는 향후 주택시장 관리방안 마련에 대비하고, 주택수급을 조절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나 주택시장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아파트가격의 시계열자료를 구축하고 지역별 변화특성을 분석하여 주택투기나 물리적 거주환경차이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및 지역별 불균형 형성에 대비하고자 한다.

2. 인천시의 지역별 아파트가격 변화 특성

인천시는 1997년부터 아파트의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높으며, 중구, 동구, 연수구, 강화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1993~2003년 동안 1.8배 증가하였으며, 중구와 서구가 가장 높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비중은 연수구가 가장 높으며,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는 인천시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서구와 남동구는 1999년 이후에 크게 상승하여 이 시기에 아파트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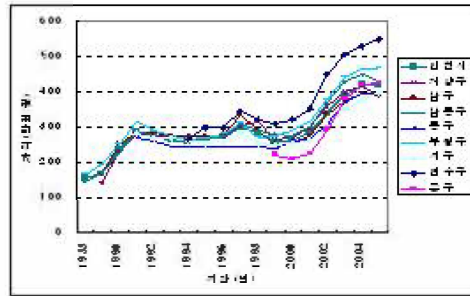
이러한 인천시의 지역별 아파트가격 변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 평당 아파트매매가격은 1988년~2005년 동안 2.7배가 상승하였으며, 1995년부터 연수구가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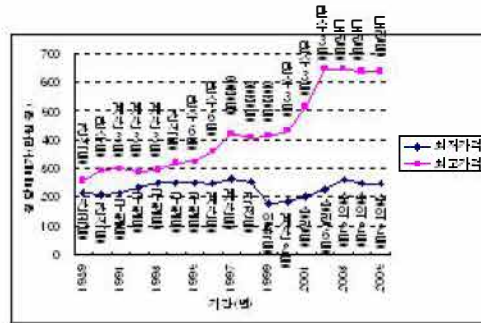
둘째, 아파트매매가격의 변동율은 1990년~1991년과 2002년~2003년의 변동폭이 가장 크며, 계양구가 가장 커다란 변동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동구가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 안정된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0년 이후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의 단지별 차이는 2000년 4배에서 2005년에는 10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아파트가격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 동지역내에서의 격차는 부평구가 가장 적으며, 남동구가 아파트단지별 가격차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천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아파트가격과의 관계는 문학지구 등 6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착공, 논현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등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학익과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계산, 삼산2, 마전택지개발사업의 착공시기에는 인천시의 아파트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인천시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



< 인천시 아파트 매매가격 최고가 동지역과 최저가 동지역 변화추이 >

3. 정책제언

첫째, 주택종합계획 등과 같은 주택의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도심재생사업, 뉴타운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신개발사업 등 다수의 주택관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주택수와 인천시의 수요를 추정하여 주택공급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의 수립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둘째,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대비한 모니터링과 주택관련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의 인천시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형성되어 왔지만, 2000년 이후 송도신도시개발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지역별로 차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별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완화나 대비적 차원에서 주택관련자료의 구축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입지적 여건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별 격차 발생, 대단위 아파트에서의 공공시설의 관리나 아파트 문화에 대한 인지 등 향후 아파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의마련이 요구된다 .

해/외/출/장/리/포/트

일본 동경도 에도가와구(江戸川区) 친수공원 및 친수녹도

환경생태연구실 권전오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0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1. 도시 소개

일본의 수도인 동경도는 23개구와 위성도시로 구성된 거대도시인데 동경만을 따라 치바현을 동쪽에, 요코하마시가 있는 가나가와현을 서쪽에 두고 있다. 에도가와구는 동경 도심부에서 약 10km 동쪽 외곽에 자리잡고 있으며 저층의 주택지 비중이 큰 편이고 인구 66여만명, 면적 49.09km²이다.

에도가와구는 7개의 큰 하천을 가지고 있는 물의 도시라 할 수 있는데 동쪽은 에도강, 서쪽은 아라가와강, 중앙에는 신천 등이 흐르고 있다.



2. 친수녹도를 만든 과정 및 조성사례

< 일본 동경도 에도가와구 위성사진 >

1) 치수에서 친수, 그리고 생태하천으로



100여년전의 에도가와구는 중소하천이 많은 저습지로 한가한 전원풍경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성장, 공업화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저습지의 매립과 시가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과거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으며 태풍, 홍수, 동경만의 만수위 등 자연재해를 방제하기 위해 하천과 해안제방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도시화에 따라 구경계내에 있던 농수로 430km는 점차 공장폐수나 생활폐수로 오염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 이치노에사카이가와친수공원(외부전경) >

이에 따라 오염된 하천을 매립하여 도로로 만들자는 여론도 있었으나 복개하여 도로를 만드는 대신에 환경하천으로 재생하고자 1973년에 후루가와(古川)를 먼저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였고 더불어 친수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는 친수공원 5개 노선 9,610m, 친수녹도 18개 노선 17,680m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2006년 현재 이들 모두가 완성된 상태이다.

친수공원조성 초기에는 다소 오염된 하천원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 수질정화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깨끗하게 멸균·소독된 물을 사용하여 수질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멸균된 하천에는 물고기, 수서곤충 등 생물이 살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는 다소 깨끗해진 하천의 원수를 멸균·정수없이 그대로 흘려 하천의 자연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하천을 정비하고 있다.

2) 절충형 생태하천 조성

이치노에사카이가와(一之江境川) 친수공원
원은근자연형 친수공원의 대표적인 사례
이면서 아울러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정수, 멸균한 물놀이장
을 설치하여 여름철에 이용하게 하고 있으
며 그 외의 계절에는 하천원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공간
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들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정수된 물을
넣기 전에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하게 되
는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소
중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



다.
<여름철 어린이들의 이용을 고려해 조성된 친수공간>
이와 같이 본 친수공원은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이용을 절충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3. 시사점

일본 동경도 에도가와구의 하천복원을 3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1단계는 냄새나고 쓰레기로 넘쳐나는 하천을 포기하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
2단계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나 자연성이 없는 하천에 자연성을 부여하는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3단계는 이치노에사카이가와친수공원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맑은 물과 자연성을 함께 추구하는데, 일부 구간에는 정수된 물을 여름철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과 기간에는 하천의 원수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이용과 자연복원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신/간/소/개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산업비전 2020연구팀-산업연구원

극심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전개하기 위해서 2020년 한국산업의 성장모습을 전망하고 유망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거시경제, 산업구조, 대외부문,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 산업의 위상에 관한 비전을 제시한 단행본. 미래 세계 경제 변화의 핵심 동인인 메가트렌드와 세계 각국의 산업발전 비전, 또 한국 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의 현 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분야로 기대되는 유망산업을 선정 발표하였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0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B&I)개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핵심 도시 브랜드로 기능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도시브랜드 마케팅전략 수립을 통한 인천광역시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도시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 인지도와 도시연상 이미지를 조사분석하고, 이미지 분석과 포지셔닝 작업후에 슬로건과 디자인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과 정책을 제언하였다.

2006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대한민국정부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6), 초고속정보통신기반사업(1995-2005), 제1차8228;제2차8228;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10)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먼저 선진한국을 위한 정보화 추진의 경과와 성과, u-KOREA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보화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 인프라조성과 유비쿼터스 서비스활성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따뜻한 디지털 세상구현과 글로벌 IT리더를 향한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